

# “용인 땅 ‘다운 계약서’ 작성 탈세 의혹”

## ■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투기·탈세 의혹과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문성과 도덕성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민주당은 이날 백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시 값을 낮춘 이른바 ‘다운(Down) 계약서’를 작성,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봉균 의원은 “백 후보자의 용인 수지 땅 매입가격은 2억 6천만원, 김인계약서상 신고가격은 2천500만원이다. 실제 매입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취득·등록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액이 아무리 낮더라도 시가의 30%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적용됐던 만큼 2006년 이전 다운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매매시 일상적으로 수반되는 관행이자 정세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백 후보자는 1981년 이후 현재까지 12번 주소를 이전했고, 미국유학 시절에도 주소가 3번 바뀌었다”며 “특히 92년 배우자와 자녀만 반포동에서 성산동으로 이전하고 보름 뒤 후보자와 성산동으로 이전했으나 다시 1개월 후 반포동으로 복귀하는 등 정상적인 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공직자 후보로서 투기 의혹을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부동산 거래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세무행정 전문성 및 코드인사=여야는 백 후보자가 경제학자 출신으로 세무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세정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을 추궁했다.

강봉균 의원은 “국세청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국세행정 실무경험도 없고, 경제학자지만 조세분야에는 특별한 연구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나”고 물었다.

또 백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장 개발연구위원장을 지냈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등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며 코드 인사에

## 세무행정 전문·코드인사 쟁점 부각

## 나주세무서 직원 고발 문제 추궁도

대한 지적도 있었다.

주승용 의원은 “백 후보자는 대통령 측근이 다닌다는 소망교회 신도이고, S라인(서울시청) 출신 최측근”이라며 “현 정부가 서민정권으로 변하려면 서민감정에 부합하는 인사가 임명돼야 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해 정권의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나주세무서 직원 고발 문제=나주세무서 직원이 한상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글을 올려 파면·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역대(국세)청장 6명이 감옥에 갔는데 그중 한 명이라도 국세청에서 검찰에 고발했느냐”며 “전일 청장에 대해 비판했다고 그 사람을 파면시켜 버리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한 뒤 소청심사위에서 구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법령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부비판에 대해선 유연한 자세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백 후보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백용호 “국세청내 국세행정위 설치”

### “고위·간부직 변화 필요”... 인적쇄신 예고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8일 국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로 국세청 내부에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의 하나로 거론됐던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내부에 그런 기능을 설치해 감독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백 후보자는 그러나 고위직 간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그는 국세청 인적쇄신 방향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직, 간부직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

했다.

하지만 백 후보자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여 “(국세청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국세청 조직이 변화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서 강요된 쇄신과 개혁보다 공감대와 시간을 갖고 점

진적으로 쇄신과 개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청 폐지 및 일선 세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백 후보자는 이어 세무조사와 관련, “대

(다)법인 같은 경우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단위의 순환주기 조사 방식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는 신호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정권이 바뀌면서 국세청 일부 간부들이 권력의 시너지를 자처한 게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납세행정에 있어 국세 징수와 부가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갖고 일하지 않았느냐는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이밖에 국세청장의 인사권한 독점 논란 등과 관련, “필요하다면 과감히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李 대통령 ‘대북지원금’ 발언은 대북정책 실패 오도하려는 변명”

### 박지원 의원 비난

민주당 박지원(사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지원금의 복핵개발 사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남북관계를 이 꼴로 만든 사람들의 변명으로써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1994년 김영삼 정권 때도 했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대북지원은 쌀, 비료 등 생필품의 지원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 경제가 민수경제와 군수경제로 분리돼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1년 반의 대북정책 실패를 오도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정부 1년 반 동안 북한에 쌀 한 톨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대북정책이 잘 되고 있고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폴란드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



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간 북한에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

고 핵 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는 유엔제재와 같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재의 목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와 대화를 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가장 폐쇄된 사회의 지도자”라며 “모든 나라가 개방화와 국제공조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데 북한은 완벽하게 폐쇄된,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라고 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몽준 “정책 중심으로 계파 헤쳐 모아야”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8일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해법과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다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이승열의 SBS 전담대’에 출연, “요즘 관심사가 사교육비 절감대책인데 이런 정책을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는 게 문제해결 방식”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요 당직에 있는 분들, 가령 현역 의원들의 (계파에 대한) 사고 틀이 확연히 달라져, 자연, 공천 때 인연 등 과거 연고로 인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조기 전담대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10월 재보선도 있고 국내 정치 분위기도 변했으니 당 지도부를 바꿔달라는 게 당원들의 뜻인 것 같다”며 “당 쇄신을 위해 9월 조기 전담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당 쇄신 특위의 ‘국민통합 총리론’ 건의가 박근혜 전 대표나 총정권 인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질문에 “박 전 대표도 하시면 잘

할 것이고 총정권 인사가 돼서 국민통합이 된다면 그것도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자신의 입각설에 대해선 “공직이라는 게 죽음이 같다. 찾아오면 하는 것이고 하겠다고 찾아다니는 생각도 없다”며 “현재 당에서 할 일이 있다”고 일축했다.

일시국회 공전 사태와 관련해서 그는 “18대 국회가 개원해서 삼상적인 국정마비 사태를 보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체제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원포인트 본회의’

### 여야, 15일 열기로

여야는 8일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과 국회 예결위원장, 윤리위원장, 운영위원장 선출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안상

수, 민주당 이광래, 선진과 창조는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와 연쇄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우재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5일 본회의는 현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최”라며 “파병연장동의안 18일 만료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 뜨거워지는 夫婦 (센놈)

초 고령화 사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노후에도 부부관계는 중요하며 노인들에 상관심도는 70%나 높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세트는 최신제품만 3종류로 구성되어 20~80대 노후까지 오감도 만족을 드립니다.

개발자

- ① 요부로 유혹하며 환희가 넘치는 남녀공용 **속궁합**과
- ② 수입한 원리는 복용하면 성능력이 좋은 **분말100%**와
- ③ 사용즉시 발기되어 우람하고 당당한 거구 **센놈**이 있어 부부가 더욱 뜨겁게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을 위해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미성년자 상담은 거절합니다.)

상담 070-7786-8710/070-7786-9710  
전화 010-5296-4114

농협 569-12-034626(배의각)

### 나만의 특별한 유학, 알고가자 !!

## 아일랜드 유학 설명회

Study Abroad & English Language Seminar 2009 ★ IRELAND  
아일랜드 조기 유학 및 교환학생 / 어학연수 / 인턴쉽 / 영어캠프

- ◆ 아일랜드 전문가 한국 방문 설명회
- ◆ 비자걱정 없는 나라 / 안전하고 친절한 나라
- ◆ 교육강국 / 인력강국 / 젊은 나라 아일랜드
- ◆ 적은한국인 / 인턴쉽 기회 풍부
- ◆ 행사일시 ; 7월17일-부산 / 7월18일-서울 / 7월19일-광주

“광주” - 7월19일 일요일 2pm 김대중 컨벤션 센터 2층 203호

❖ 아일랜드 유학 설명회 참가신청 ❖

전화신청 - 광주 010-4159-3114 / 아일랜드+ 353-87-635-7817/ 070-8285-7817  
이메일 신청 - sunny@com2ireland.com 또는 leo-david@hanmail.net  
홈페이지 : 청/바/지 http://cafe.naver.com/ohero 카페사이트에서 ‘참가신청’ 클릭

주최 | 청소년의 바람직한 유학생활 지원센터 아일랜드 현지본사 COM2IRELAND LTD